

2.5단계까지 매일 등교... 예비교사 1000명 추가 투입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

3단계 격상엔 1대 2까지 대면교육 수업참여 어려울시 학습자료 대체 초등 특수학급에 374명 인력 배치 대학 특수교육과 학생 700명 투입

특수학교 장애학생은 오는 3월 입학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3단계에서는 1대 2까지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등교 확대에 대비해 특수학급에 방역과 학습 지도를 담당할 지원인력 1000여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새 학기 대비 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특수학교(학급)는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하게 된다. 지역별 감염 추이와 학교 여건 등을 중



교육부가 3월 입학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소속 장애학생의 대면수업과 지도를 확대하기 위해 정원의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고 대학 특수교육과에 다니는 예비교사도 투입한다. 사진은 유은혜 부총리가 지난달 특수학교 현장을 방문한 모습. /뉴시스

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할 수 있다.

전면 봉쇄 수준인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1대 1 또는 1대 2 대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어 등교수업을 희망하지 않거나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장애학생들은 등교 대신

대체 학습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특수학교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인력 374명을 배치한다. 대학과 연계해 특수교육과 학생 등 예비 특수교사 약 700여명을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급

에 투입해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원격수업 플랫폼의 경우 서비스 환경을 고도화한다. 실시간 자막, 음성재생 속도 제어, 대체 텍스트 등 장애학생 원격수업의 접근성을 높인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체험 학습자료,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학부모 학습자료 등 약 70여종의 맞춤형 학습자료를 개발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 자막지원 프로그램과 특수학교 체험교실 30개교와 체험버스2대를 운영해 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장애학생 상황이나 학교 특성에 맞는 돌봄과 방역을 지원한다. 특수학교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특수학급의 경우 돌봄 참여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등과 연계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새 학기 집중방역 관리를 위해 학교별 2주간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특수학교 방역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특수학교 기숙사 8개교는 입소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보호자와 방문자 출입을 제한해 기숙사 인원을 최소화하며, 입소자는 1일 2회 이상 발열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부정적 행동이 늘어난 장애학생을 위해 가정과 연계한 행동중재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행동중재지원센터를 5개소 구축하고, 가정과 연계한 행동중재 전문가 1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학생들이 매일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새 학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촘촘하게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상대-경남과기대, '경상국립대'로 통합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내달 출범 입학정원 감축없이 동일 지역 통합 내년부터 통합 체제로 신입생 선발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국립대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가 통합해 오는 3월 1일 경상국립대로 출범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대학은 지난해 5월 자율 통합을 신청해 통폐합 심사를 거쳐 같은해 11월 최종 승인 받았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부 행정조직 범위나 학생·공무원의 소속변경 등 조치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통합대학의 교명은 경상국립대로 변경된다.

두 대학의 통합은 입학정원 감축 없이 이뤄진 동일 지역 자율 통합 첫 사례다. 경상국립대 입학정원은 총 4313명으로,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



국립대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가 통합해 오는 3월 1일 경상국립대로 출범한다. 사진은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대학통합 실무단 출범식 모습. /뉴시스

중 세번째로 크다.

2022학년도부터 경상국립대는 통합체제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캠퍼스는 가좌캠퍼스와 칠암캠퍼스, 통영캠퍼스, 창원산학캠퍼스를 두고 각 분야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상국립대는 1총장 3부총장이 4차 1국 4분부를 운영하게 된다. 단과대학 20개와 일반대학원 1개, 특수대학원 11개, 학부 19개, 학과 88개가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국립대학 통폐합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특성화를 통해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일지역(경남 진주)에 위치한 두 대학의 자율적 통합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교육부도 양 대학이 마련한 통폐합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 101개 고교에 '학점제 교실' 생긴다

서울시교육청 '설렘ON실' 운영 다른 학교와 실시간 쌍방향 수업 교내에선 소인수 선택교과 수업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도입을 4년 앞두고 서울시내 101개 고등학교에 올해부터 학점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교실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공립 일반고 208개교 중 101개교(48.6%)에 이같은 내용의 '설렘ON실'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렘ON실은 미래형 가변적 교실 공간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및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다양한 학습을 위해 마련 중이다. 교내뿐만 아니라 학교 간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 소규모 협업 수업이 가능하다.

가장 큰 특징은 접이식 문을 교실 공간 안에 설치한 점이다. 학생 수나 수강 과목의 특성에 따라 접이식 문을 열고 닫아 교실 구조를 바꾸고, 같은 공간에서 다른 수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시교육청은 약 80%의 학교가 이달 중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당장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설렘ON실'을 학교가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등교 시에는 소인수 선택교과 수업을, 원격 수업 시에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하는 식이다. 가변형 교실과 온라인 스튜디오를 결합하고 배치하는 방식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교수·학습이 가능하다.

오는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 예정인 자율형 공립고 중 '설렘ON실'을 구축한 학교는 시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설렘ON실'은 학교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형 수업의 거점 허브(HUB)가 되도록 했다"며 "특히 '서울형 고교학점제'의 핵심으로 올해부터 일과 중 정규 시간 내에 운영되는 '공유 캠퍼스(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에서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의 내실화를 기하며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려대-경남과기대 공동연구팀

순수 그래핀 리튬이온 저장원리 규명

세계 최초 개발... 안정성 개선 기대

고려대는 주병권 전기전자공학부 교수팀과 정현영 경남과학기술대 에너지공학과 교수팀이 기존 탄소전극의 용량과 안정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순수한 그래핀 기반의 전극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순수 그래핀의 추가적인 리튬이온 저장원리를 밝혔으며, 기존 탄소전극 대비 8배 이상의 성능구현을 구현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나노분야 최상위급 학술지 'ACS Nano'에 게재됐다. 'Impact factor'의 약어로 학술지를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왼쪽부터)주병권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교신저자), 정현영 경남과학기술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교신저자), /고려대

연구진은 순수한 그래핀에서 리튬이온의 LiC6 이상의 용량구현 원리를 분석하기 위해 '전기화학적 흑연 박리법'을 통해 제작된 고순도, 대면적의 그래핀 시트를 활용해 그래핀 전극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그래핀의 표면(surface)과 모서리(edge) 효과로부터 기인한 전기화학적 특성, 사이클 안정성 및 반복되는 충·방전 과정에서 그래핀 표면에 형성된 SW 결합이 추가적인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순수 그래핀 에어로젤 전극을 통해 제작된 리튬이차전지는 성능과 안정성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기존 흑연전극에서 문제가 됐던 수명, 낮은 출력특성에서 향상된 성능을 나타낸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순수 그래핀의 리튬 저장원리를 밝힘으로써 그래핀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전극의 성능을 압도하는 차세대 전극소재로 그래핀의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학술적 연구결과가 실용화되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대, 총장 최종 후보자에 박종태 교수

이사회서 투표로 최종 후보 선출

인천대는 22일 이사회를 개최해 '인천대 최종 총장 후보자 선출안'을 심의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제3대 총장 최종후보자로 박종태 전자공학과 교수(사진)를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초 박종태 교수, 최계운 명예교수 2명의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사회는 2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이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에 따라 재직이사과반수를 득표한 박종태 교수를 최종 총장후보자로 선출했다.

박종태 최종후보자는 향후 교육부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임명일로부터 4년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박종태 최종후보자는 인천대 교학부 총장, 법인 이사, 평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이현진 기자